

# “쉬는게 오히려 불안 난 역시 관중인가봐”

예능에 그룹활동·솔로앨범 열일 “피곤해도 팬들 관심 받으면 힘나” 10곡 모두 작사·작곡·편곡 참여 개코·릴보이·선우정아 등 피쳐링

그룹 위너의 송민호(28)는 똑똑하다. 여전히 tvN 예능프로그램 '신서유기' 속 '모지리' 캐릭터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는 애써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고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데 능숙하다. TV 속 캐릭터는 말 그대로 '캐릭터'일 뿐이다.

“어떤 모습이든 송민호이고, 나다운 걸 보여주고 싶다.”

7일 발표한 솔로 정규 3집 '투 인피니티'(TO INFINITY.)로 가요계에 돌아오면서도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계 없이 도전하는 송민호”를 이야기했다.

그의 동료 멤버들은 솔로 활동에서 그룹과 차별화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전혀 다른 음악을 선보여 왔다. 하지만 송민호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며 솔로와 그룹 활동이 전혀 다르지 않아 어떻게든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 그래서 올해 예능프로그램 출연과 그룹 활동, 솔로 앨범까지 ‘열일’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정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이날 오후 6시 새 앨범을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그는 “사실 아무 것도 안 하는 순간이 제일 힘들다”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힘들다. 난 역시 약간의 관심을 받아야 살수 있는 ‘관중’(관심종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이 아니더라도 팬들의 관심은 그에게 원동력이다. “팬들의 관심에)몸과 마음이 피로해도 또 그게 정말 피곤한 게 아니다”란다.

송민호의 못 말리는 열정은 이번 앨범에서도 드러난다. 앨범 제목인 ‘투 인피니티.’는 애니메이션 ‘도이스토리’의 주인공 버즈 라이트이어의 명대사 “투 인

피니티 앤드 비욘드(To Infinity And Beyond·무한의 공간, 저 너머로!)에서 착안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탕!♡’을 비롯해 ‘러브 인 다카’(LOVE IN DA CAR), ‘피라미드’(PYRAMID), ‘바른말’, ‘킬’(KILL), ‘뒹’, ‘궁금해’ 등 10곡이 담겼다. 그는 전 곡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다. 타이틀곡 제목이나 앨범 타이틀에 기초를 쓴 것도 시선을 잡아끈다.

“‘시티 카우보이’ 콘셉트로 정하고, 디지털 느낌을 살리고자 이모티콘을 넣었어요. ‘사랑의 총알’이라는 의미와 여러 가지 강렬함을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했죠. 단순하고 촌스러우면서도 임팩트 있는 카우보이를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싶었어요.”

앨범에는 개코, 릴보이, 소금, 선우정아, 아이론 바비 등 동료 가수들이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작업하며 곡에 어울릴 것 같고, 평소 내가 자주 듣고 좋아하는 가수들 위주로 (피쳐링을)부탁드렸죠. 곡과 잘 어울려 분위기도 제곱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하하하!”

도전적인 실험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다. 앨범 재킷 등을 저탄소 종이와 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다. 음반 인쇄물은 산림관리협회(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저염소 표백펄프로 만든 저탄소 종이를 만들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음반시장에서도 친환경 소재로 앨범을 만든 건 드문 일이다.

평소 뛰어난 미술 실력을 자랑하며 전시회도 열었던 그는 이번 앨범을 주제로 서울 마포 YG 신사옥 앞 ‘더 세일’ 카페에서 그동안 틈틈이 그렸던 미술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이정은 기자 annoy@donga.com

▶“한계 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솔로 가수로 돌아왔다. 팬들의 관심이 없으면 일을 하는 이유도, 재미도 없는 일종의 “관중”이지만 그는 지칠 줄 모르고 한계에 도전하는 걸 즐긴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 ‘술도녀’ 마치고 ‘미우새’ 고정 슈주 최시원 친근한 매력의 힘

두터운 해피 팬덤도 방송가 인기 원동력

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방송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섰다.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 ‘술꾼도시여자들(술도녀)’을 마치고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 고정 출연자로 합류해 화제몰이 중이다.



최시원

최시원은 11월26일 종영한 ‘술도녀’에서 예능 PD 감독 역을 맡아 ‘로코 주역’으로 떠올랐다. 내년 촬영을 목표로 기획단계에 접어든 시즌2에도 같은 캐릭터로 출연한다. 이에 앞서 차기작도 찾고 있다. 이미 다양한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고 검토해왔다. 2019년 정치 소재의 KBS 2TV ‘국민 여러분!’, 지난해 MBC의 공상과학(SF) 단편 ‘시네마틱드라마 SF8-증강공각자’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온 이력이 원동력으로 꼽힌다.

최근 고정 출연자로 합류한 ‘미우새’로는 친근한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취미인 승마를 즐기는 등 독특한 모습으로 시청자 시선을 잡아끌었다. 박승영 책임프로듀서(CP)는 7일 “탁재훈·이상민 등 기존 출연자들과 친분이 있어 ‘케미’가 좋다”면서 “자신만의 개성이 강해 프로그램에 색다른 색깔을 입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터운 팬덤의 해외 인기도 한 몫한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라면 등 각종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동 중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신진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신회원은 “최시원이 온·오프라인 광고에 계속 출연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스우파’ 내년 1월 1·2일 서울 양꼬르 공연

네티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의 서울 양꼬르 공연이 확정됐다. 8일 공연을 주관하는 CJ ENM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온 더 스테이지’의 서울 양꼬르 공연을 내년 1월 1·2일 양일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YGX, 라치카, 원트, 웨이비, 코카엔버터, 프라우드먼, 홀리뱅, 후 등 ‘스우파’에 출연한 8개 댄스팀이 꾸민다. 이들은 11월2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CJ ENM 측은 “일찍잡치 전석 매진돼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양꼬르 공연을 준비했다”며 “더욱 커진 무대와 연출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툼 홀랜드 ‘손흥민은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주인공인 톰 홀랜드가 토트넘 홋스퍼 소속 손흥민과 만났다. 7일 톰 홀랜드는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손흥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다. 바로 이 방에서 최근 만났다”면서 “그에게 경력, 축구 철학 등을 인터뷰하는 것처럼 계속 질문했다”고 최근 그와 만난 일화를 공개했다. 손흥민도 최근 개인 SNS를 통해 톰 홀랜드와 스파이더맨 포즈를 취한 채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톰 홀랜드가 주연한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은 15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봉한다.

#### WGA “기생충, 21세기 최고 시나리오 4위”

미국시나리오작가조합(WGA)이 21세기 최고의 시나리오 101편을 발표한 가운데, 영화 ‘기생충’이 4위에 올랐다. 7일(한국시간) WGA가 공개한 수상 목록에는 봉준호 감독과 한진원 작가가 각본을 쓴 ‘기생충’이 이름을 올렸다. ‘기생충’은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에 오른 바 있다. 1위는 조던 필 감독의 장편 데뷔작 ‘갯 아웃’, 2위에는 찰리 카우프만의 ‘이터널 선샤인’이 올랐다. 이어 영화 ‘쇼셜 네트워크’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각각 3위와 5위에 올랐다.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

## ‘지옥’ 다음은 나! 웹툰 원작 드라마 잇따라 출격

웹툰 ‘이번 생도...’ 드라마화 확정 MBC ‘내일’ 등 내년 상반기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을 비롯해 ‘D.P.’, ‘스위트홈’ 등 웹툰을 원작 삼은 케이(K)드라마가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방송사와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 웹툰 IP(지적재산권)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7일 방송가에 따르면 현재 연재 중인 이혜 작가의 ‘이번 생도 잘 부탁해’가 내년 드라마로 제작된다. 시청자에게 잘 알려진 ‘스타’ 연출자가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MBC ‘내일’, SBS ‘사내맞선’, OCN ‘아일랜드’,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은 이미 내년 상반기 공개를 확정했다. 디즈니+(플러스) ‘무빙’과 넷플릭스 ‘택배기사’도 웹툰을 영상화하며 각각 한효주·조인성, 김유빈·이승 등 톱스타를 주연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인기 웹툰을 향한 방송가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관계자는 7일 “이전에는 완결된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했다면, 요즘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작품도 드라마 제작 제안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제작사는 2010년대 웹툰까지 훑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내일

대중에게 인정받은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끌어들이는 해외 관심도 경쟁에 불을 붙인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최근 내놓은 ‘해외 권역별 주요 인기 차트를 통한 한류 콘텐츠 선호도 동향’에 따르면 일본·프랑스·독일·인도네시아 등 해외 웹툰 플랫폼에 ‘여신강림’ ‘나혼자만 레벨 업’ ‘입학용병’ 등 한국 작품이 10위권에 안착했다. 프랑스 만화전문 매체 ‘저널 뒤 자퐁(Journal du Japon)’은 “한국 웹툰이 독자적 라이선스를 활용해 해외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관심은 웹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확장한다. 실제로 웹툰 ‘지옥’은 드라마 공개 이후 평균 조회수가 22배가량 치솟았다. 드라마와 웹툰을 동시에 제작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어진다. SBS ‘그 해 우리는’은 6일부터 동명의 웹툰을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공개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지옥’ 대박에 영화 연출까지...박정민 전성시대

단편영화 ‘엔프레임드’ 연출자 참여 내년 5월 개봉 ‘1승’ 선 구단주 연기

배우 박정민이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연기는 물론 영화 연출자로서도 작품을 내놓는다. 2011년 데뷔 이후 10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새로운 10년의 무대를 펼쳐갈 전망이다.

박정민은 주연작인 ‘기적’을 지난 추석 연휴 극장에 내걸었다.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71만여 관객 앞에 섰지만, 감염병 사태에 맞서 한국영화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유체이탈자’, ‘장르만 로맨스’ 등 한국영화의 선전을 이끌어내는 토대를 마련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으로는 ‘전 세계 많이 본 콘텐츠’의 단맛도 봤다. 지옥의 사자들이 지옥행을 고치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사이 사이버종교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방송사 PD 역할을 연기했다. “똥똥한 친구들은 물론 고교 담임 선생님까지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힘이 됐다”며 단맛을 만끽하고 있다.

8일 스크린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차로 동시 선보이는 영화 ‘엔프레임드’에는 감독으로 참여했다. 배우 이제훈·최서희·손석구와 함께 한 편식 단편영화를 연출해 두은 프로젝트에서 ‘반장선거’를 맡아 초등학교 5학년생들의 치



박정민

열한 반장선거 풍경을 담았다. 감독을 꿈꾸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출과에 입학했다 연기과로 옮겨간 그는 “20대 초반 이후 연출은 꿈도 못 꿴다”면서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갖고 있던 시나리오를 영화화하게 됐다”며 흐뭇해했다.

이후로도 쉬지 않는다. 내년 5월 영화 ‘1승’을 선보인다. 송강호·장윤주·박명훈 등과 호흡을 맞춰 1승을 꿈꾸는 여자배구단의 이야기를 펼치며 구단주로 나선다.

산문집 ‘쓸 만한 인간’ 등을 펴내며 작가로도 데뷔한 박정민은 영화 ‘변산’에서 랩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그만큼 관심사의 폭이 넓고, 실제로 지닌 재능도 다채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1년 영화 ‘파수꾼’으로 데뷔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에게 갑자기 보석 같은 영화와 역할이 주어져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후 10년. “참 많은 일과 감정의 요동이라는 동굴 안에 있었던 세월”을 보냈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그리고 ‘지옥’ 등이 “한국 작품을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할로”를 뚫은 지금, “즐겁게 일해야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포부는 탄탄한 만큼 안정적인 연기력과 친근감과 신뢰의 힘에서 나온다는 평가다. 윤여주 기자 tadada@donga.com